

3년째 '라니냐 현상'... 올 겨울 춥고 가물다

광주·전남 12월 평년 수준이거나 낮고 내년 1월 기온차 커 눈·비도 적어 가뭄 해갈 난망... 일상생활 속 철저 대비해야

올 겨울 광주·전남은 지난해 보다 춥고 눈이나 비가 적게 내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특히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3년 연속 '라니냐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남부지방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전 세계 기상청 및 관계 기관이 제공한 12개 기후예측모델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지역은 겨울철인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평년과 기온이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보이며, 강수량도 평년보다 적을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반대효과를 내는 라니냐와 온난화 경향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변동성은 있지만, 지난해 겨울보다는 더 추운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상청의 분석이다.

기상청은 겨울 날씨를 전망할 때 라니냐, 북극 바

다얼음(해빙) 등으로 한기가 남하할 가능성과 온난화 경향과 성층권의 서풍 편차 등으로 기온 상승 여부를 고려한다.

라니냐는 열대 중태평양부터 남미 해안에 이르는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상태로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현상이다.

라니냐가 발생할 경우 11월~2월에 기온이 낮고 건조해지는 특징이 있다. 기상청은 이번 겨울에도 라니냐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라니냐는 2020년 8월 시작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3년 연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일본 남동쪽 지역에 저기압 편차가 발달해 우리나라로 북풍계열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

여기에 감소한 북극 해빙의 면적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대륙고기압 발달로 인해 12월에 우리나라로 찬 공기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상청은 이 외에도 티벳고원에 덮힌 눈이 평년보다 많기 때문에 초겨울 한파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있다.

결국 올 12월 평균기온은 평년(3.4~4.4도)과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 평균기온은 평년(1.2~2.2도)과 비슷한 것으로 보이지만,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큰 폭으로 기온이 떨어질 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2월 평균기온은 평년(2.3~3.7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성층권 상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서풍편차로 기온이 다소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의

해갈도 난망하다는 것이 기상청의 전망이다.

기상청은 해수면 온도와 이동하는 기압대를 분석해 강수를 예측하는데 라니냐가 이어지는 탓에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올 겨울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부족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12월과 1월에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다소 큰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광주·전남지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기상청의 분석이다. 12월의 강수량은 평년(19.8~28.6mm)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1월에도 평년(17.4~26.8mm)보다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겨울 날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종합하면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돼 지난해보다도 추운 겨울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강수량이 적어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일상생활 속에서 가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천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어린이통학버스 '불량' 광주·전남 10대 중 6대

광주·전남 어린이통학버스 중 62.8%가 안전장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 등 어린이 보호 기능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 본부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한 '2022년 하반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에 담겼다.

공단은 올 하반기 광주·전남 47개 기관, 916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통학버스 안전장치 요건 구비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체 검사 대상 차량의 631대에서 미비점이 발견됐다. 상반기 62.3%에 비해 0.5%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어린이 탑승 여부를 표시하는 어린이 보호 표지를 잘못 설치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승강구, 소화기, 정지표시 장치, 정지표시 등 설치를 잘못한 경우가 뒤를 이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시 서구 화정동 이마트 광주점에서 지난 19일 진행된 '썬세일'에 온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마트 빅세일 '복적복적'... 안전관리는 '미흡'

SSG 한국시리즈 우승 기념 행사 카트 1200여 대 동나고 통로 막혀 고객·직원 뒤엉키며 불편 초래 마트측 "일시적 혼잡, 통제 부족"

광주지역 이마트에서 대규모 할인행사가 진행되면서 시민들이 몰렸지만 안전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18~20일 'SSG 랜더스' 프로 야구 한국시리즈 우승 기념 대규모 할인행사를 열었다.

이 기간 이마트에서는 '봉지라면 2+1', '초코파이 1+1', '된장 1+1', '주방세제 50% 할인' 등 먹거리와 생필품 등의 대규모 할인행사가 진행됐다.

지난 19일 오전 10시께 찾아가던 광주시 서구 화정동 이마트 광주점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동식 카트 1200여대가 모두 동이 나 카트를 기다려 달라는 방송까지 나왔다.

특히 먹거리와 생필품을 판매하는 이마트 광주점 1층 대부분 구역에서는 카트를 끌고 다니는 손님과 매대를 채우려는 직원의 동선이 엉켜 아수라장이 연출됐다.

라면 매대에서는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했다. 일부 인기가 많은 제품 매대에서 손님들이 뒤엉켜 넘어지거나 매대 사이에 끼는 등의 일이 발생했다. 더구나 계산대부터 늘어선 줄이 통로까지 가로막으면서 간 허버리는 손님도 부지기수였다.

마트 측은 행사 시작 후 1시간여가 지나서야 통행을 방해하는 이동식 매대를 옮기고 손님들의 카트를 가로로 정렬하며 통제하면서 "안전이 중요하다"는 방송을 반복했으나 혼란은 수 시간이 지나도

복 잡처럼 풀리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자 '이태원 헬러원 참사'가 한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별다른 안전 대책 없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를 치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민혁(41)씨는 "매대 사이에 갇히고, 2층으로 가려고 해도 통로가 막혀 빙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계속됐다"며 "직원들이 와서 고객 동선을 통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민지(여·35)씨도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몰리면서 말 그대로 짐작도 못하는 상황이 몇 번 있었다"며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이태원 참사가 생각이 나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고객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통제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통제를 했지만 시간에 따라 일시적으로 혼잡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글·사진=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미얀마 민주화 운동 알리는 광주, 유엔 특별보고관 임무와 비슷해"

미얀마 유엔인권보고관, 광주 찾아 연대활동가 면담

토마스 앤드류스(Thomas Andrews) 유엔 인권이사회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이하 특별보고관)이 지난 18일 광주를 방문해 미얀마 연대활동을 살폈다.

20일 미얀마광주연대 등에 따르면 앤드류스 특별보고관은 지난 18일 광주를 방문해 5·18기념재단에서 재한 미얀마인들을 비롯한 미얀마 광주연대 활동가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어 국립5·18민주묘지, 5·18기록관, 전일빌딩 등을 방문했다.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이 우리나라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앤드류스는 지난 16일 방한해 18일 하루 동안 광주일정을 소화했다.

앤드류스 특별보고관은 미얀마 인권 상황을 조사·연구해 유엔총회 및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방한 결과는 특별보고관의 2023년 3월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앞 브리핑에 반영될 예정이다.

앤드류스 특별보고관이 광주를 찾은 이유는 미얀마에 대한 연대가 광주에서 유독 활발하기 때문이다.

앤드류스 특별보고관 일행은 미얀마광주연



토마스 앤드류스 인권특별보고관(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18일 5·18기념재단에서 재한 미얀마인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미얀마광주연대 제공>

대 활동가들과 면담자리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진과 미얀마의 상황 사진이 비슷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얀마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리며 꾸준한 연대 활동을 하는 등 광주의 역할이 국제 사회에서 유엔 특별보고관의 임무와 비슷하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출신인 앤드류스는 미국 메인주 하원의원을 역임한 뒤 지난 2020년부터 미얀마 특별보고관을 맡고 있다.

한편 미얀마 광주연대는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총 3억 1000만원 상당의 기금을 모금해 미얀마 민주화운동활동가와 난민 등을 위해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 화순, 전원주택 부지, 매매
2. 약 4800평
3. 매매 - 16억 8천만원
4. 문의 . 010 - 3605 - 5000